

##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채 창 균\*

### 요약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 학교성적이 우수한 졸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많이 하는 한편으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대학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대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에 있을 가능성을 높였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또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거나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들의 대학진학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가구소득 1백5십만원 정도의 차이가 퍼센트 학교성적이 50%p 높은 것과 맞먹는 효과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점도 특기할 만하다.

### 1. 문제제기

2005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 10명 중 거의 7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진학률이 10%내외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종국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크게 퇴색된 엄청난 변화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의 인력수요가 보다 고급의 직업기술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된 측면도 존재하고, 전통적으로 높았던 교육열이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대학정원에 비해 대학 입학 가능자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진학이 보다 용이해진 상황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정철영, 1997).

이렇게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요인들이 졸업생의 대학진학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반대로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일인의 졸업 전 상황과 졸업 후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는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가 충분치 않았던 현실의 탓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가 구축되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생의 진로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 조사 자료의 경우 1차 조사 당시의 실업계 고교생 2,000명의 졸업 후 1년 이내의 상태가 조사되어 있는 만큼, 1차 조사 자료와 2차 조사 자료를 연결한다면 졸업전의 학교나 가정내 상황이 졸업후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조사 및 2차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실업계 고교생이 졸업후 어떤 진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실업계 고교생의 졸업 후 진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대학진학자는 전체 졸업생의 63.7%에 달한다.<sup>1)</sup> 그런데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은 전체의 19.6%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대부분은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했으며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졸업생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이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입학생의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sup>2)</sup>,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일반계 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나 지방소재 대학에 주로 진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계 고교를 마치고 취업한 졸업생의 비중은 전체의 24.0%이다. 졸업생 4명 중 1명꼴로 취업해 있는 셈이다. 취업자의 80%는 상용직에 취업해 있으며, 20% 정도만 상용직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sup>3)</sup>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전체 졸업생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업 상태에 있는 졸업생은 전체의 6.7% 수준이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계산해보면<sup>4)</sup>, 약 21.5%로 전체 청년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대단히 높다. 취업해 있지도 않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도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졸업생의 5.1%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졸업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졸업생의 비중은 전체의 약 2.6% 정도이다.<sup>5)</sup>

1) 같은 2005년 졸업생에 대한 교육통계연보상의 대학진학률이 67.6%에 달하는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조사 시점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상의 자료의 기준 조사 시점이 2005년 4월 1일인 반면,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의 경우 7월부터 12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진학한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위해 자퇴한 학생들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비진학자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2005년 대학 입학생의 대학유형 및 소재지별 구성을 보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20.5%, 지방 4년제 대학 39.0%,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17.7%, 지방전문대학 22.8%(교육통계연보)로 나타난 반면,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생의 경우 각각 2.6%, 28.1%, 26.7%, 42.6%의 비중(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을 보인다.

3) 여기에서 상용직이란 '고용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경우'를 말하며, 상용직의 비율은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 기초하여 집계된 것이다.

4) [실업자수/(취업자수+실업자수)] × 100으로 계산

5)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준비가 필요해서' 또는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NEET족으로 간주하였다.

〈표 1〉 실업계 고교생의 졸업후 진로

		명	%	
대학진학자	4년제대학	지방	293	17.92
		수도권	27	1.65
	전문대학	지방	443	27.09
		수도권	278	17.00
취업자	상용직 근로자		321	19.63
	비상용직 근로자		72	4.40
	기타(자영업자 등)		8	0.49
실업자		110	6.73	
비경제활동	교육·훈련 중		41	2.51
	NEET		42	2.57
계		1,635	100.0	

### 3. 진로선택 요인의 도출

우선 아들과 딸에 대한 교육투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성별임금격차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동일한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딸에 대한 교육투자보다는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주호·홍성창(2001), 이은우(2004), 채창균(2006) 등 교육투자를 사교육비 지출과 연관지은 그간 국내의 논의 결과를 보면, 적어도 사교육비 지출의 측면에서 학생의 성별은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투자를 대학진학에 대한 선택을 중심으로 실업계 고교생에 국한하여 분석할 경우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특성 역시 졸업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노동시장의 상황에 부합되게 취업에 용이한 기술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경우, 졸업생 중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의 부합 여부는 개별 학교별로도 다르겠지만, 크게 본다면 실업계 고교의 계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별로 졸업생의 진로선택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다.

졸업생의 성적 역시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능력이 좋을수록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을 것이므로,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은 능력이 우수하거나 성실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기업체에 주게 될 것이므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전락하기보다는 취업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학중의 징계 경험 여부는 동일한 이유로 학교 성적과는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고교 재학 당시의 근로 경험이 학업이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학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부의 경우 별다른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sup>6)</sup>하고 있는 반면, Greenberger & Steinberg(1980), Mortimer & Finch(1986), Steinberg & Dornbusch(1991), Barone(1993) 등 다수의 논문에서는 고교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낮은 학업성적과 연관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가 명확하여,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졸업후의 취업과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yer & Wise, 1982; D'Amico, 1984; Mortimer & Finch, 1986; Marsh, 1991 등).<sup>7)</sup> 국내에서도 고교 재학중의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도 고교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학업성취도를 낮춰 대학진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 보다는 취업해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자녀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층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사이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교육사회학의 오래된 명제이다. Coleman(1966)에 따르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가정배경이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Hauser et al.(1971), Jencks et al.(1972), Mosteller & Moynihan(eds.)(1972) 등도 대체로 Coleman(1966)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명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지만, 이해영·강태중(2004), 김경근(2005) 등에서 유사한 주장이 확인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필연적으로 대학진학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교육이 정상재(normal good)인 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므로 자녀의 대학진학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녀수는 자녀의 대학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Becker & Lewis(1973)의 논의에서처럼 자녀의 수는 자녀의 질(결국 자녀가 받는 교육투자의 정도)과 음의 상관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 Gade & Peterson(1980), Meyer & Wise(1982), Lillydahl(1990) 등은 고교 재학 중의 근로 경험이 학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시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고, D'Amico(1984)은 백인 남자 학생의 경우에만 재학 중 근로 경험이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7)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재학중의 근로경험이 단기적으로는 취업성과를 높이지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진로 결정 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여기에서는 진로 선택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들 변수에 따라 진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다.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특성이나 학교생활 실태, 재학 중 근로경험 등을 들 수 있다.

〈표 2〉 성별 진로선택

(단위: 명,%)

	대학진학	취업	기타(실업 및 비경제활동)	계	검정통계량
남	637 (72.14)	139 (15.74)	107 (12.12)	883 (100.00)	$\chi^2=83.55$ p=0.0001
여	404 (53.72)	262 (34.84)	86 (11.44)	752 (100.00)	

먼저 성별에 따라 진로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남자 졸업생의 경우 여자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하는 비중은 낮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남자 졸업생의 경우 72.1%인데 반해, 여자 졸업생의 경우 53.7%에 불과하다. 반면 취업자의 비중은 남자 졸업생의 경우 15.7%인데 반해, 여자 졸업생의 경우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비중은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출신 실업고 계열에 따른 진로의 차이를 보면, 상업계 고교 출신 졸업생의 대학진학 비율이 가장 낮고, 공업계 고교 출신 졸업생의 대학진학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은 상업계 고교 출신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비율은 농업계나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 등 기타 계열 출신 졸업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학교특성 및 학교생활실태와 진로선택

(단위: 명,%)

		대학진학	취업	기타(실업 및 비경제활동)	계	검정통계량
학교 계열	공업계고등학교	445 (68.67)	127 (19.60)	76 (11.73)	648 (100.0)	$\chi^2=31.35$ p=0.0001
	상업계고등학교	535 (59.78)	261 (29.16)	99 (11.06)	895 (100.0)	
	기타	61 (66.30)	13 (14.13)	18 (19.57)	92 (100.0)	
재학중 성적	하위10%	74 (47.13)	51 (32.48)	32 (20.38)	157 (100.0)	$\chi^2=60.29$ p=0.0001
	하위30%	179 (56.11)	90 (28.21)	50 (15.67)	319 (100.0)	
	하위50%	217 (66.98)	75 (23.15)	32 (9.88)	324 (100.0)	
	상위30%	223 (66.57)	82 (24.48)	30 (8.96)	335 (100.0)	
	상위10%	92 (79.31)	18 (15.52)	6 (5.17)	116 (100.0)	
재학중 징계	받은적 있다	141 (59.49)	60 (25.32)	36 (15.19)	237 (100.0)	$\chi^2=7.00$ p=0.072
	받은적 없다	900 (64.38)	341 (24.39)	157 (11.23)	1398 (100.0)	

재학중의 학교 성적<sup>8)</sup>에 따른 진로의 차이도 뚜렷이 확인된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대학진학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취업자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든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비중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상위 10%에 속했던 학생의 경우 79.3%가 대학에 진학한 반면, 하위 10%에 속했던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47.1%에 불과하다. 반대로 취업하는 비중은 상위 10% 그룹의 경우 15.5%에 불과하고, 하위 10%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32.5%에 달한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비중을 보면 성적 상위 10% 그룹의 경우 5.2%에 불과한 반면, 하위 10%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20.4%에 이른다.

한편 재학중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sup>9)</sup>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다소 떨어지는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을 비율이 높아진다. 징계 미경험자의 경우 경험자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5%p 정도 높은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을 비율은 4%p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중 근로경험도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학중에 근로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대학진학자의 비중이 근로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재학중의 근로경험이 학업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 재학중 근로와 진로선택

(단위: 명, %)

		대학진학	취업	기타(실업 및 경제활동)	계	검정통계량
재학중 근로경험 여부	있다	531 (57.72)	275 (29.89)	114 (12.39)	920 (100.00)	$\chi^2=37.10$ p=0.0001
	없다	510 (71.33)	126 (17.62)	79 (11.05)	715 (100.00)	

가구특성 역시 학생의 진로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학생의 경우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68.7%로, 양친 중 한분이 없거나 모두 없는 학생에 비해 9%p 정도 높았다. 반면 취업하는 비율은 19.6%로 양친 중 한분이 없거나 모두 없는 학생에 비해 10%p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진로 선택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표본의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내 학생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93.3%에 달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내 학생의 49.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내 학생 중 취업자의 비중은 5.0%에 불과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내 학생의 30.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비율도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낮아진다. 가구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내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1.7%에 불과한 반면,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19.4%에 달한다.

8) 여기에서 학교성적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 조사시에 담임선생이 기록한 해당 학생의 2학년 2학기 성적을 말한다. 학교성적은 전교나 계열, 또는 학과나 학급 단위로 전체의 %를 기록하거나 전체인원 대비 등수를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9) 이 역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 조사시에 해당 학생이 교내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 학생의 담임선생이 응답한 것이다.

<표 3>과 비교해볼 경우 대학진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적보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 상태에 있는 졸업생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자의 학력도 학생의 진로선택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대학진학률은 52.3%로, 보호자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의 39.1%에 비해 크게 높다. 반면 보호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보호자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자녀의 11.4%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반면,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이 3.6%로 크게 낮아진다.

가구내 자녀수도 자녀의 진로선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대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대학진학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녀수가 1명에 불과한 경우 대학진학자의 비중이 72.3%에 달하는 반면,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53.4%로 크게 떨어진다. 대신 취업자의 비중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취업자의 비중은 18.7%에 불과한 반면,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이 33.8%로 크게 높아진다.

<표 5> 가구특성과 진로선택

						(단위: 명,%)
		대학진학	취업	기타(실업 및 비경제활동)	계	검정 통계량
양친 유무	유	445 (68.67)	127 (19.60)	76 (11.73)	648 (100.0)	$\chi^2=59.97$ p=0.0001
	무	535 (59.78)	261 (29.16)	99 (11.06)	895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만원)	0~20%	82 (49.70)	51 (30.91)	32 (19.39)	165 (100.0)	$\chi^2=135.33$ p=0.0001
	21~40%	137 (49.46)	90 (32.49)	50 (18.05)	277 (100.0)	
	41~60%	294 (73.32)	75 (18.70)	32 (7.98)	401 (100.0)	
	61~80%	188 (62.67)	82 (27.33)	30 (10.00)	300 (100.0)	
	81~100%	334 (93.30)	18 (5.03)	6 (1.68)	358 (100.0)	
보호자의 학력	중학교이하	407 (39.13)	515 (49.52)	118 (11.35)	1,040 (100.0)	$\chi^2=66.21$ p=0.0001
	고등학교졸업	233 (58.10)	150 (37.41)	18 (4.49)	401 (100.0)	
	전문대학졸업이상	101 (52.33)	85 (44.04)	7 (3.63)	193 (100.0)	
자녀수	1	120 (72.29)	31 (18.67)	15 (9.04)	166 (100.0)	$\chi^2=25.28$ p=0.0027
	2	654 (65.99)	220 (22.20)	117 (11.81)	991 (100.0)	
	3	196 (56.81)	105 (30.43)	44 (12.75)	345 (100.0)	
	4명이상	71 (53.38)	45 (33.83)	17 (12.78)	133 (100.0)	

### 5. 다항로지분석

이 절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요

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요인들이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대학진학이나 취업, 실업(또는 비경제활동인구화) 상태로의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설명변수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기준은 여성), 실업계 고교의 계열(기준은 농업계나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 등 기타 계열), 학교성적, 재학 중 징계 경험 유무(기준은 징계 받은 적이 없음)와 같은 학교특성 및 학교생활 실태,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기준은 근로경험 없음) 등이 고려되었고, 졸업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지의 여부(기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분이 없거나 모두 없는 경우), 가구소득, 보호자의 학력(기준은 중졸이하)<sup>10)</sup>, 자녀수 등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먼저 고려하는 설명변수들의 기초 통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의 비중이 다소 높고, 계열별로는 상업고가 가장 많아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공업고의 비중도 40% 가까이 달한다. 퍼센트 석차로 표시된 성적의 평균은 대략 중간 수준이며, 졸업생의 14.5% 정도가 재학 중에 징계를 경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학 중 근로경험자가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 실업계 고교 졸업생 가구의 특성을 보면, 가정 환경의 열악함이 확인된다.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는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보호자의 학력도 낮아 전체의 63.7%가 중졸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보호자는 11.8%에 지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2004년 기준 중위 가구소득(월평균 268만원)의 약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자녀수는 약 2.29명이었다.

#### <표 6>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량

10) 보호자의 학력은 주로 아버지의 학력을 의미하며, 아버지가 없는 경우 어머니나 다른 보호자의 학력을 대신 사용하였다.



		빈도수(명(%))	
성별	남	883	(54.01)
	여	752	(45.99)
계열	공업고	648	(39.63)
	상업고	895	(54.74)
	기타	92	(05.63)
재학중 징계 경험	있다	237	(14.50)
	없다	1,398	(85.50)
재학 중 근로경험	있다	920	(56.27)
	없다	715	(43.73)
양친보호자	모두 있다.	648	(42.00)
	한분이 없거나 두분 다 없다.	895	(58.00)
보호자의 학력	중졸이하	1,040	(63.65)
	고졸	401	(24.54)
	전문대졸이상	193	(11.81)
		평균	표준편차
성적(%)		53.22	26.773
월평균가계소득(만원)		219.513	148.994
자녀수(명)		2.292	0.811

다항로지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여자에 비해 남자 졸업생의 경우 취업하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오드비(odds ratio)를 구해보면, 남자 졸업생이 여자졸업생에 비해 취업을 선택하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3.4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자 졸업생의 경우 취업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자 졸업생에 비해 취업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훨씬 높다. 남자 졸업생의 경우 여자 졸업생에 비해 취업상태에 있기보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2.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신 고교 계열도 졸업 후의 진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계나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 등 기타 계열 출신 졸업생에 비해 공업계나 상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공업계나 상업계 고교 졸업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기타 계열 출신 고교생의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업계나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 계열의 실업계 고교에 비해 공업계나 상업계 계열 실업계 고교의 경우 졸업생의 취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고교 계열의 차이가 취업과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에는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재학중의 성적은 졸업후의 진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퍼센트 석차가 50%p 정도 높은 졸업생의 경우 취업을 선택하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1.8배 정도 높아진다. 취업보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퍼센트 석차가 50%p 낮은

졸업생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학 중 성적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재학중의 징계 경험 여부는 졸업후 진로에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부호로 본다면, 재학중 징계 경험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대학진학보다는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취업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재학 중의 근로 경험도 졸업후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학 중에 근로경험이 있었던 졸업생의 경우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해 있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재학 중 근로경험이 없었던 졸업생의 약 55% 수준에 불과하며, 취업해 있기보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약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환경이 졸업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가 모두 있는 졸업생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없거나 모두 없는 졸업생에 비해 졸업 후 취업하기보다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2.1배 정도 높다. 반면 두 집단간에 취업과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졸업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가 졸업후 취업하기보다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높다면 자녀의 대학진학 가능성이 1.5배 정도 높아지며, 1백5십만원 높을 경우에는 1.8배, 2백만원 차이가 날 경우 2.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조건들이 통제될 경우 졸업생의 취업과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에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인 졸업생의 경우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1.7배 정도 높아지며,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1.8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들이 통제될 경우 자녀수에 따른 졸업 후 진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부호만을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대학진학보다는 취업, 또 취업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별과 더불어 학교 성적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징적인 사실은 가구소득이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하는데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소득 1백5십만원 정도의 차이는 퍼센트 학교성적이 50%p 높은 것과 맞먹는 효과를 지

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큰 것은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로 실고생의 경우에도 성적과 무관하게 희망하기만 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대학진학과 취업간의 선택에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과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선택에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단기 상황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가정환경이 좋은 졸업생의 상당 정도는 당장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s)이 높거나 재수 등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7〉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변수	대학진학/취업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취업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248	0.519	-0.197	0.652
성별	1.223 ***	0.196	0.800 ***	0.264
공업고등학교 졸업여부	-0.953 **	0.434	-0.703	0.533
상업고등학교 졸업여부	-0.980 **	0.418	-0.965 *	0.515
성적/10	0.118 ***	0.028	-0.083 **	0.038
재학중 징계경험 유무	-0.269	0.214	0.010	0.278
재학중 근로경험 유무	-0.590 ***	0.153	-0.481 **	0.210
부모가 모두 있는지의 여부	0.726 ***	0.190	0.005	0.247
월평균가계소득(십만원)	0.040 ***	0.008	0.015	0.011
보호자의 고등학교 졸업여부	0.542 ***	0.158	0.448 **	0.218
보호자의 전문대학이상 졸업 여부	0.578 *	0.330	-0.163	0.525
자녀수	-0.131	0.089	0.092	0.117
log-likelihood	-989.03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 6. 요약 및 맺음말

한국고용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대학진학자는 전체 졸업생의 63.7%에 달하며, 취업자는 24.0%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진학자들의 다수는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는 전체 졸업생의 6.7%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통상적인 실업률의 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이 21.5%에 달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 청년층이 청년실업대책의 주된 대상으로 위치 지워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취업해있지도 않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도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졸업생의 5.1% 수준이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졸업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위 NEET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졸업생의 비중은 전체의 약 2.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업자나 NEET족 등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규모는 실제보다 과소하게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조사에 응답했던 실업계 고3 학생 중 2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데, 이들의 경우 2차 조사에 응답한 졸업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하지 못한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몇 가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결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졸업생의 진로 선택에 대해 3절에서 예측했던 대로의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여자에 비해 남자졸업생의 경우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계열도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학교성적이 우수한 졸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많이 하는 한편으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해 있을 가능

성이 높아진다. 반면 기대와 달리 재학 중 징계 경험은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되게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대학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대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해 있을 가능성을 높였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또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거나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들의 대학진학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반면 다른 조건들이 통제될 경우 기대와 달리 자녀수가 진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 1백5십만원 정도의 차이가 퍼센트 학교성적이 50%p 높은 것과 맞먹는 효과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점도 특기할 만하다.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진학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 이주호·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제49집, 제1호
- 이혜영·강태중(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철영(1997), “대학진학과 실업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 97년 공동학술대회
-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2호
- Barone, F. J.(1993), "The Effects of Part-Time Employment on Academic Performance", *NASSP Bulletin*, 77(Jan.)
- Becker, G. S. and H. G. Lewis(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1, no.2, 279-288
- Coleman, J.(1966),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1)
-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July).
- Gade, E. and L. Peterson(1980), "A Comparison of Working and Nonworking High School Students on School performance,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Esteem",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Sept.
- Greenberger, E. and L. D. Steinberg(1980), "Part-Time Employment of In-school Youths: A Preliminary Assessment of Costs & Benefits", in U.S. Vice President's task Force on Youth Employment, *A Review of Youth Employment problems, Programs, and Policies*,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Hauser et al.(1971),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merica Society*. NY Academy Press
- Jencks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Harper & Row Publishers.
- Lillydahl, J. H.(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Part-Time Employmen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 Marsh, H. W.(199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or A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Sociology of Education*, 64(July).
- Meyer, R. H. and D. A. Wise(1982), "High school Preparation and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in R. B. Freeman & D. A. Wise(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rtimer, J. T. and M. D. Finch(1986),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t Self-Concept & Achievement", in K. Borman & J. Reisman(eds.), *Becoming A Worker*, Norwood, NJ: Ablex.

Mosteller, F. and D. P. Moynihan(eds.)(1972), *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Vintage Books, random house.

Steinberg, L. and S. M. Dornbusch(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nominal logit analysis on the career choice of vocational high-school graduates, graduates with excellent school grades enter colleges/universities than have jobs, and also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than unemployment or economically inactive state came to be higher. Also work experience at a high school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going on to post-secondary schools, but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than unemployment or economically inactive state. And in the case of students from family of higher household income, or with the both parents alive, or of parents' high level of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colleges/universities entering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appeared to be significant that the difference of 1,500,000 won of household income was equal to discrepancy of 50%p of school grades represented by percent.



토 론 문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에 대한 토론

정 철 영\*

- 발표자께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1차, 2차 한국고용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업계 고교생 2,000명이 졸업 후 어떠한 진로 (진학,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를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졸업 후의 진로에 그들의 성별, 학교 특성 및 학교생활실태 (학교계열, 재학 중 성적, 재학 중 징계,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 가구특성 (양친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보호자 학력, 자녀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 패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63.7%이고, 취업자는 24.0%, 실업자는 6.7%, 비경제활동인구는 5.1%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진학자는 67.6%, 취업자는 27.7%, 입대자는 0.2%, 무직자는 2.5%, 미상은 1.8%였다.
  - 패널자료의 진학자 비율 (63.7%)이 통계연보의 진학자 비율 (67.3%)보다 다소 낮은 이유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교육통계연보상의 자료조사 시점은 2005년 4월 1일인 반면, 패널자료는 7월부터 12월에 걸쳐 조사되어 진학한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위해 자퇴한 학생들이 패널자료에서는 비진학자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같은 논리라면, 패널자료의 취업자 비율 (27.7%)이 통계연보의 취업자 비율 (24.0%)보다 다소 낮은 이유도 취업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 졸업생들이 패널자료에서는 취업자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패널조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많이 제시되기에 수행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추정이 아니라 보다 명확히 밝혀지도록 조사 문항이 구안되고, 조사지가 설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또한 4월 1일 조사된 통계연보에서 입대자로 분류된 0.2% (393명)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는 7월부터 12월에 조사된 패널자료에서는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궁금하다.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

■ 진로결정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학교계열, 재학 중 성적, 재학 중 근로경험, 양친유무, 월가구 평균소득, 보호자의 학력, 자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재학 중 징계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진학비율은 높고, 취업비율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그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 즉, 남학생의 진학비율이 높은 이유가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비율이 높은 공업계열이나 기타 계열에 많이 재학하여서인지, 그들의 재학 중 성적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한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공업고등학교나 기타 고등학교의 진학 비율이 상업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그들의 학업성적 때문인지, 성별 구성비 때문인지, 동일계 대학이 많아 진학이 용이해서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재학 중 성적이 상위 10%이내인 학생들의 진학률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높은 반면, 상위 30%이내 학생들은 50%이내 학생들보다 진학률이 낮고,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보호자의 학력이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녀가 보호자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자녀보다 대학 진학이 높는데 반해, 보호자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녀보다는 낮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변인들의 관한 보다 종합적인 다단계 분석이 요구된다.
-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보았을 때, 81~100% 가정의 진학비율이 다른 모든 계층보다 높은 반면, 61~80%인 가정의 진학비율이 41~60%보다 낮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다항로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학교성적,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표 7>에서는 계수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베타 값과 오드비 (odds ratio)를 구분하여 모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구소득, 성적, 재학중 근로경험이 「대학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대학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이 단순한 가구 소득에 의함인지, 아니면 가구 소득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경험을 하지 않게끔 함에 따른 간접 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대학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와 취업의 선택」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과 진학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

계 고등학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많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대학 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대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 보다는 취업해 있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께서 미국의 연구사례를 고찰한 바에 따르면,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낮은 학업 성적과 연관되어 있고...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졸업 후의 취업과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재학 중에 근로경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가, 만일 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라 달리 해야 하는지, 또한 기간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의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현장실습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대학 진학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대학 진학의 결과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등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의 측면은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측면과 함께 학생 개인의 측면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근로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일반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사회봉사 및 근로경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하신 발표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